



# 신흥 IT시장을 지향하는 동남아시아

열대림 같아 미래가치 크지만 위험도 큰 시장

글 \_ 오완진(벤처기업협회 홍보팀장)

**동**남아시아가 우리 벤처기업인들의 마음을 유혹하고 있다. 동남아 국가들은 전통적으로 천연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을 육성해왔다. 하지만 최근 이들은 지식정보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있다. 특히 국가차원의 드라이브정책에 힘입어 IT산업을 축으로 한 새로운 시장이 팽창하고 있다.

이러한 시류를 반영하듯 최근 기술경쟁력을 갖춘 외국 기업들이 이들 시장으로 몰려들고 있다. 벤처기업협회도 지난 삼일절에 기술독립군 벤처기업인 20여 명을 태국과 말레이시아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급파했다. 합산인구 3만 명을 육박하는 동남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벤처기업인으로 구성된 시장개척단으로 파견한 것이다.

## 동남아 IT산업 국가지원으로 팽창

시개단이 먼저 도착한 나라는 불교의 나라 태국. 인구 6100만 명이

농업을 기반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태국에도 지금 첨단산업 열풍이 불고 있었다. 특히 컴퓨터 관련 산업, IT서비스산업, 통신산업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날로 증폭되고 있다.

태국의 IT시장규모는 지난해 31억 달러, 올해 33억 달러로 추정된다. 소비성향은 가정용, 교육용, 통신용을 축으로 개인 중심의 시장이 형성된 반면 정부와 기업시장은 다소 부진한 형편이다.

개인용 컴퓨터 출하량은 지난해 85만3000대를 기록했으며, 매년 20%대 성장하고 있다. 지난 '99년 130만 명에 불과했던 인터넷 사용 인구는 최근 400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 태국 IT시장에서 각광받는 분야는 네트워킹장비, 디지털영상저장장치, 컴퓨터주변기기 등이다. 최근에는 게임산업에 대한 관심도 증폭되고 있다.

반면 기술수준은 대체로 낮게 평가되고 있다. 하드웨어부분이 64%,

소프트웨어부문이 17%를 차지하고 있는 태국 IT시장의 수입의존도는 60%와 90%에 이른다. 최근 태국정부가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IT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미진한 상황이다.

인케(INKE) 방콕지부 방오원(아이니월드 대표) 의장은 “태국은 동남아 국가 중에 비교적 IT관련 인프라가 약한 편이며, 발전 속도도 늦다”고 평가했다. 시개단의 우리 기업인들도 기술차이가 있어 당장 대규모 IT관련 시장이 형성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 말련, 우리 기술에 대한 관심 매우 높아

시개단이 두 번째로 방문한 나라는 인구 2300만명의 말레이시아. 말련은 반도체분야에서 글로벌경쟁력을 갖추 만큼 기술개발 능력을 갖고 있는 나라이다. 또한 정부주도의 공공투자 확대로 GDP가 6%대 성장하고 있어 동남아 국가 중에서는 세계경제 수준에 근접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를 반영하듯 시개단이 머물고 있는 호텔로 현지 기업인들이 대거 몰려들었다. 업체당 상담 건수는 평균 15건 이상. 이니시스 이금룡 대표는 “최근에 이처럼 입이 아플 지경으로 영어를 구사해 회사를 설명한 적이 없다”며 “기술 수준이 상당히 시장개척 전망도 좋다”고 평가했다.

한편, 말련의 캐피탈들도 우리 기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한국기술거래소 안민주 전문위원은 “금융시스템이 싱가포르 수준에 접근해 있어, 우리 기업에 대한 투자는 현지 개별기업보다 캐피탈들이 접근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것이 보편적인 듯하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말련은 설비투자 과잉과 높은 수출의존도, 수입규모 확대, 민간투자 위축 등으로 국내 경기가 위축되어 있다. 최근 정부가 적자예산을 편성하면서까지 경제살리기에 나서고 있어 조만간 회복세에 들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쾌청한 날씨는 아닌 듯하다.

한편, 말련은 일정한 기술력과 IT산업 관련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 대규모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어려운 우리 벤처기업들이 개별 진출을 시도하기에 호기인 나라로 분류된다. 반면 인구 대비 시장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은 나라이기도 하다.

### 인니, 섬나라 특성 반영된 시장 주목

마지막 방문지는 1만3000여 섬으로 이루어진 인도네시아였다. 세계 5위인 2억1290만 명이던 인구 자체가 시개단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 나라였다.

인니의 IT시장규모는 아직 크지 않다. 지난 '00년 컴퓨터 보급수는 인구 대비 1% 수준에 불과한 200만대에 머물고 있고, 현재 인터넷 사용인구는 180만 명으로 추산된다. 유선전화 600만대, 무선전화기 300만대가 보급되어 관련 인프라가 극히 낮은 수준이다.

최근 인니 정부는 IT산업 육성을 표방하고 나서며 인프라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힘입어 외국 자본들도 광케이블 건설 및



이동통신 등에 적극 투자하고 있다. 우리 벤처기업들이 인니로 진출할 경우 다소 유리한 산업분야는 인터넷사업, 통신장비, 이동통신단말기, 멀티미디어영상기기 등이 해당될 듯하다. 인니는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인 만큼 IT산업 발전의 기본 인프라가 되는 유선전화 보급이 취약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산업 즉, 무선통신, 네트워크 장비, 위성수신기 분야가 유효할 것이다.

현재 IT관련 우리 기업 20여 곳이 이곳에 진출해 있다. 이들은 대체로 웹포털, 솔루션, 컨설팅, H/W관련 분야로 진출해 IT관련 인프라 구축사업과 같은 대형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지는 못한 형편이다. 하지만 벤처기업 시스폴(대표 성기철)이 최근 전화와 인터넷 그리고 케이블TV를 한꺼번에 서비스하는 대형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어 현지인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한편, 인니로 진출하려는 기업들이 명심할 부분이 있다. 인니는 가는 곳마다 사설경비가 삼엄할 만큼 치안이 불안한 나라이다. 더욱 종교가 사회덕목을 좌우하고 있어 경제논리로 풀 수 없는 또 다른 제약이 있는 것을 각인할 필요가 있다.

### 미래가치 큰 만큼 위험도 많아

시개단이 방문한 동남아 국가들은 전통산업의 틀에서 벗어나 신흥시장으로 진화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하지만 정보화산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기에는 아직 주변여건이 미숙한 형편이다. 특히 인프라 구축이 미진해 우리 벤처기업들이 단독으로 대형 프로젝트를 펼치는 데는 위험이 크다.

그럼에도 우리 기업들이 동남아 시장으로 자꾸 눈길을 돌리는 데는 그만큼 이유가 있다. 인니 현지에서 보레스넷을 경영하고 있는 장호열 대표는 “지금 동남아는 기술수준이 낮고 첨단기기 상용 인구가 적다. 하지만 언젠가 상용이 가능한 인구 10%만 잡아도 수천만이다. 우리가 주목하는 시장이 바로 이들”이라고 밝혔다.

열대우림 같은 동남아 시장은 아직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래가치가 큰 만큼 위험도 상존하고 있다. 도전의 가치가 있는 만큼 우리 벤처기업인들의 눈길을 잡아두기에 충분한 듯하다.